

中共에서의 實用主義에 대한 批判理論

— 胡適에 대한 批判을 中心해서 —

李 楠 永

(서울大學校 人文大 教授)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胡適의 哲學과 그의 唯物主義와의 對立 |
| II. 胡適의 實用主義에 대한 批判原因 | V. 結 論 |
| III. 胡適思想 批判運動의 展開 | |

I. 머 리 말

오늘의 中共은 이미 <닫혀진 中共>에서 <열려진 中共>으로 轉換하고 있다. 中共은 毛澤東이 사망(1976.9)하기 이전에도 그동안 적대적 내지는 냉전의 관계이었던 美國을 비롯한 西方국가들과 서서히 관계를 改善하기 시작하였다. 60年代 이래 美國을 비롯한 西方국가들은 中共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對中접근에의 信號를 보낸 바 있었으나 中共은 한결같이 <잠자는 巨人>의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터이었다. 그러하던 中共이 71년 7월 닉슨 美國대통령의 訪中계획을 공표하자 이는 곧 <닉슨 쇼크>로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여하튼 中共의 外交的 태도전환은 무엇보다도 中共을 둘러싼 軍事的 내지 국제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데 온 세계는 희망적 契機로 보고 싶었다. 급기야 닉슨대통령은 그 이듬해인 1972년 2월에 中共의 關門을 열었고 두나라 元首는 首腦會談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른바 <上海코뮤니케>라는 中美共同聲明의 結實을 얻었다. 中共은 같은 해 9월에 日本과 그리고 10월에는 西獨과 각각 國交를 확장 수립해 감으로써 외교적으로 開放政策을 서서히 착수하여 갔다. 닉슨의 대통령 후임으로 등장한 포드대통령이 1975년 12월 北京을 방문하였을 무렵 세계는 이를 역사적 記事로 취급하는 데 다시는 그렇게 열광하지 않았다.

1976년 周恩來와 毛澤東이 연이어 사망하고 中共은 내부의 정치적 屈折을

겪으면서도 對外관계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뜻을 구체화하였다. 1978년 5월에 中共은 1979년 1월 1일을 기하여 미국과의 전면적인 관계 正常化를 수립하고 당시 國務院 副總理인 鄧小平이 그후에 곧 미국을 방문할 것이며 3월 1일부터는 와싱턴과 北京에 각기 大使館을 설치한다고 공표하였다. 이 발표는 中共과 그리고 세계전체의 流動과 변화를 절감케 하는 역사적 과정의 한 轉機가 아닐 수 없었다.

이제 世界人口의 근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中共이 그동안 완고하게 고집하던 外國人 혐오증세를 극복하고 國際社會에로 나섬과 동시에 自國을 열려진 社會로 전환시키에 이 모든 급작스러운 中共의 旋回를 주도하던 實力者로 鄧小平이 지적되었다. 鄧은 毛澤東의 사망을 전후해서 3차에 걸쳐서 失脚과 축출의 굴욕적인 운명으로 고통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얼마 안가서 다시 復權되고 復活하여 마치 <不死鳥>나 <오뎅이> 내지는 <패배를 모르는 인물>이라고까지 묘사되던 인물이다. 78년 여름 이래로 79년 1월 그가 미국에 발을 내딛기까지 鄧小平은 세계적인 話題의 人物로 각광을 받았다. 鄧小平은 과연 누구인가에 관한 傳記의 기사는 물론이고 그의 정치지도자로서의 탁월성과 展望에 관하여 수많은 논평을 쏟아놓게 하였다. 그를 둘러싼 여러가지 逸話들도 함께 소개되었다.

미국의 대표적 주간지인 「뉴스 위크」(Newsweek)과 「타임」(Time)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자는 1978년 12월 25일자 발행지를 「新中共」특집호로 꾸며 이른바 中國의 모든 문제와 鄧小平에 관하여 상세히 소개 해설하였고, 후자는 1979년 1월 1일자 발간지에 <1978년의 인물>로 鄧小平을 선정하여 표지 사진을 넣고 그에 관하여 심층취재를 보도하였다. 이 기사들의 소개에 의하면 그는 쏘 생애를 中國共產黨 활동에 투신한 인물이었다. 四川省 重慶근교에서 출생(1904)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후 92명의 프랑스파견 장학생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파리로 유학하였고, 그곳에서 16세의 소년으로 공부하다가 얼마후 製靴工場에서 노동을 하였다. 동시에 그는 그곳의 중국공산당 사무실에서 정기간행물인 <紅星>의 출판을 도왔는데 당시 편집인이 周恩來이었으므로 兩者의 관계는 이때부터 맺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곳에서 공산당원에 가입하였고 짧은 기간이나마 모스크바의 孫逸仙大學에서 수학하고 1926년 귀국하였다. 그 이래로 그의 당내에서의 직위는 비교적 빨리 승진되면서 공산당 활동의 거의 전반적인 직책을 두루 맡아 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鄧小平의 개인적 人物評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가 <현대적 지성을 지닌 實用主義者>(the modern-minded pragmatist)라고 묘사되고 있다. 上記의 「타임」지에서는 鄧小平이 周恩來와 같이 <신축성있는 現實主義者>(a flexible realist)라고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같은 평론에는 여러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거니와 한가지 예를 보면, 50년대 후반 中共의 大躍進운동이 실패하자 鄧은 식량증산책의 일환으로 농민에게 私有耕作權을 다시 도입시키고자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이른바 <후회할 줄 모르는 走資派>로 비판되었으나, 그는 당시에 增產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사유경작의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는 <고양이가 검은 회든 쥐들을 잡지만 한다면 상관없지 않느냐>고 주장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78년 日本과 平和友好條約을 체결코자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삼페인잔을 높이 올리면서 <지난 일은 허물잡지 맙시다>고 다짐하여 장내의 이목을 집중케 하였다고 한다.

한편 미국에서 현대중국의 소개서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클럽의 「20세기의 중국」 78년도 3판 增補版에서도 毛澤東死後의 中國을 가리켜 이른바 <실용주의자들의 집권>이라고 章의 표제를 달고 있다.⁽¹⁾

오늘날 우리 한국 내에서도 中共의 현 정권이나 鄧小平중심의 實權派들의 정책노선을 흔히 <實用主義的 노선>이라고 규정하거나 표현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時事的 지식이상의 思想史的 地平위에서 우리는 中共의 현재를 올바르게 파악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中共에서는 1954년에서 1955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미국의 實用主義에 관하여 思想論爭을 전개하고 그에 대한 思想改造운동을 전국적으로 펴 갔었기 때문이다. 격변하는 현대중국이 과연 그들의 과거의 프롤레타리아 文化大革命의 過誤를 견뎌하게 시인하고 자본주의 부활에의 길을 걷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가난한 혁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資本主義국가로부터의 科學技術과 資本을 유치하기 위한 현실적 處世手段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지인을 신중히 검토함이 좋을 것 같다.

이에 본론은 50년대 당시 中共에서 전개되었던 實用主義에 대한 비판이론을 살피면서 현재 中共에 대한 우리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로 한다.

(1) Clubb, Oliver Edmund, *20th Century China*, 3rd ed.(1978) Columbia Univ Press.

II. 胡適의 實用主義에 대한 批判原因

唯物論 哲學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存在가 意識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 명제법칙에 의하여 확립된 意識으로써 存在를 改革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實踐論이다. 여기서 唯物論의 이론과 실천문제에 커다란 自己矛盾이 있다. 유물론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인간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存在는 第一性質이며 意識은 第二性質로서 다시 말하면 객관적 물질은 第一性質이며 주관적 정신은 第二性質이라고 구분한다. 여기에 唯物論者들이 이른바 인간의 主體的 思惟를 중심해서 전개하는 여러가지 哲學을 唯心哲學이라 하여 비판하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實踐論에 있어서는 意識이 人間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개별적 소질이나 경험 및 지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一律적으로 唯物論의 체계에 용해시키려 든다. 소극적으로는 인간의 창의적 사고를 부정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온갖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와 다른 사상을 改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이 존재를 결정한다는 주장은 唯物論에 기준을 둔 意識에 부합하지 않는 存在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여기에서 유물론자들은 투쟁의 方式을 통해서라도 사상을 달리하는 인간을 改造 아니면 숙청시키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中共이 1949년 이래로 중국대륙을 장악한 후 政治鬭爭과 軍事鬭爭과 함께 이른바 思想鬭爭을 가장 강조한 이유는 全國土의 共產化와 함께 이른바 全人民의 유물론적 의식의 思想的 統一을 도모했던 데서 기인한다. 일찌기 1949년의 <整頓三風>운동, 1950년 이래 전면적으로 진행하였던 <思想改造>운동, 1952년 <武訓傳>영화의 숙청과 <文藝整風>운동, 그리고 1954년 俞平伯의 「紅樓夢研究」사건 등은 모두 이 사상투쟁의 그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이러한 사상투쟁 중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1954년 후반기에서 1955년 전반기에 걸쳐 발생했던 胡適思想에 대한 비판운동이다. 종래에 없었던 광범위한 비판과 그 비판의 방법은 中共의 사상투쟁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특 징적인 것이었다. 이 비판운동 가운데서 實用主義에 대한 비판이론을 이해한다면 오늘날 中共의 社會主義체제의 사상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다소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胡適(1891~1962)이 中共으로부터 비판받는 인물로 등장하는 이유를 그의 個人的인 측면과 思想的 측면으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胡適은 전형적인 자유주의 지식인이다. 그는 탁월한 학자로서 그리고 改良主義者로서 <중국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그는 1910년 官費留學生으로 미국의 코넬대학에 입학, 그후 콜럼비아대학으로 전학하여 哲學을 공부하고 1917년에 귀국하였다. 그는 존 듀이의 학생으로서 듀이의 實用主義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 자신도 실용주의와 미국의 民主主義에 대하여 찬사를 주지하지 않았다. 中共의 지도층에서는 그를 이른바 <美帝國主義>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숭배하는 위험한 지식분자의 典型으로 간주하였다. 二次大戰 초기(1938)에 그가 蔣介石정부의 駐美大使로 임명되자 中共側로서는 그가 국내에서는 反動分子로 그리고 국외에서는 美帝國主義와 결탁하여 봉사하는 반역자로까지 확인하게 되었다.

胡適은 생전에 끝까지 國民黨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는 大使직을 맡은 것 외에는 정부내의 보직을 수락하지 않았다. 그는 大陸이 공산화되기까지 北京大學의 文學院長, 總長 등에 취임하면서 순수히 민주주의 신봉자로서 교육과 문화의 측면에서 사회개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여러 경우에 所信 있는 발언을 통하여 國民黨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서도 정치적 독립을 고수했던 데서 거국적으로 커다란 존경을 받았다.

蔣介石은 胡適의 역량과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고려하여 항상 그를 옹호하여 왔다. 그는 中共軍이 北京을 포위하고 入城하기 바로 직전(1948. 12. 15)에 蔣介石이 보낸 特別機로 간신히 脫出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中共당국은 반동적인 國民黨과 영합했을 뿐 아니라 그가 책임맡고 있던 大學을 포기한 그의 利己의 行爲에 대하여 공격하도록 北京大學의 학생과 교수들을 동원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였다.⁽²⁾

한편 中共이 특히 胡適의 思想에 대하여 비판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관찰된다.

우선 胡適이 신봉하고 찬양하는 實用主義 내지 實驗主義⁽³⁾는 唯物論의 관

(2) Chen, Theodore H.E., *Thought Refc'm of the Chinese Intellectuals*(1960). p. 44. Hong Kong Univ. Press.

(3) 듀이는 자기자신을 實用主義者(pragmatist)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에서 윌리엄 제임스의 實用主義를 계승하였다고 볼 만하다. 그러나 듀이는 제임스의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實用主義와 唯物論은 비록 다같이 近代의 哲學思想이기는 하나, 唯物論的 辯證法은 원래 헤겔철학에서 비롯한 학설로서 生物學的 進化論이 성립되기 이전의 觀念論的 이론체제이었다. 이에 비해서 實用主義 내지 實驗主義는 生物學的 進化論이 다윈에 의하여 제기된 이후 그 영향으로 형성된 科學的 方法을 채택한 이론이다. 다윈의 進化論은 자연현상의 변화나 인간의 행위적 선택등이 모두가 조금씩 상호작용하며 變異하여 가는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보고 결코 어떤 目的으로 간단히 飛躍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더우기 한번 비약이 있는 후에 그 상태에서 不變으로 지속한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辯證法 哲學은 본래 生物學이 발달하기 이전의 進化論의 한가지 형태이었다. 변증법 자체의 이론에 의하면 正立과 反立의 모순대립적 계기를 통한 綜合에로의 단계적 발전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의적 공산주의자들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허황된 共產社會의 理想郷을 설정하고, 계급투쟁의 방법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고, 그것도 한 특정계급에 의하여 통치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주장한다. 胡適은 이같은 복잡성을 단순화하고, 근본적으로 進化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다윈 이전의 武斷的 思想⁽⁴⁾이라고 논박한다.

胡適이 實驗主義를 신봉하는 반면 共產主義者들은 唯物辯證法과 歷史唯物論을 신봉하는 격차가 바로 그로 하여금 공산주의와 결합할 수 없도록 한 사상적 기반으로 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듀이의 이론과 마르크스이론의 사회적 행동, 특히 사회변혁의 方法論에 있어서 어긋나는 점이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歷史發展의 必然性을 믿으면서 資本主義가 반드시 社會主義로 대체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듀이는 자연과 사회의 발전에는 오직 蓋然性만이 있을 뿐, 필연성은 없다고 보면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대체될 수도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대체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듀이는 마르크스의 역사적 필연성은 인간의 自由

저서인 「프라그마티즘」과 그의 후기저작들이 그 마지막 章에서, 「믿으려는 意志」속에 있는 여러 論文들의 짜이지 못한 感傷主義에로 되돌아 간 것을 싫어하였다. ("From Absolutism to Experimentalism"; *Contemporary American Philosophy* Vol. I. pp. 23-24 참조. New York, Macmillan, 1930), 따라서 듀이는 달리 「道具主義」와 「實驗主義」라는 개념을 지어내어 자기자신의 實用主義와 제임스 및 그 學派의 감상적 경향을 띤 실용주의를 구별하였다.

(4) 胡適, 「介紹我自己的思想」, 『文存』4集 卷 2.

意志를 否定하는 것이며, 인간知性的 기능을 否認하는 것으로 헤아린다.

한편 마르크스가 一元論의 歷史哲學을 주장하는데 비해서 듀이는 이를 經濟決定論이라고 말하고 스스로는 多元論의 역사철학을 주장한다. 즉 그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기질과 사회문화적 제 요인의 상호영향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경제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暴力革命의 수단을 이용하여 無產階級社會에서의 自由·平等을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듀이는 그 사회주의의 목적이 비록 民主에 있기는 하나 그 목적을 실현하기까지의 수단은 반대로 非民主的이라는 것이다. 듀이는 목적과 수단 사이의 一致性을 주장하면서, 마르크스를 가리켜 그의 非民主的 수단을 통한 결과는 반드시 비민주적인 목적에서 끝날 것이라 하였다. 폭력혁명이 비록 옛 습관을 타파하기는 쉬우나 그러나 새로운 습관이 항상 옛 습관보다 더 좋다는 보증을 할 수 없는 것일진대 결과는 폭력으로써 폭력만을 야기시키기 쉽다고 지적한다.

듀이는 胡適의 지도교수이고 마르크스는 공산당이념의 창설자로서 양자간의 날카로운 이론적 대립은 급기야 胡適과 中共지도층과의 이론적 대립을 결정짓기에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다음은 보다 직접적으로 胡適의 思想에 대하여 살펴보자. 그는 실험주의와 듀이 및 허슬러 등의 영향을 깊이 받고, 첫째로 懷疑의 精神을 키워 충분한 證據가 따르지 않는 것이 대해서는 일단 믿지 않는다는 태도이었다. 둘째는 실증적인 태도로서 모든 학설을 우선 실증되어야 할 假說로 간주하고 항상 그 사상의 結果를 살펴 判定하려고 하였다. 그의 思想은 두가지의 方法論에 입각하고 있다.⁽⁵⁾

하나는 歷史的 方法이다. 이는 胡適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祖孫의 方法〉, 즉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용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하나의 學說이나 制度를 고립적 문제로 삼지 않고 이를 항상 中間的 位置에 놓고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나는 그것이 발생한 原因, 하나는 그것이 대두된 이후의 效果, 달리 말해서 위로는 할아버지 아래로는 손자가 있듯이 이 上下兩面을 함께 파악하면서 그 문제자체의 내용과 本質을 탐구 說明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한편으로는 그 歷史적 背景을 살핌으로써 史상의 價値와 地位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學說

(5) 『胡適文選』, p. 52.

또는 제도가 대두됨으로써 초래된 結果를 살펴 그 문제의 價値基準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胡適은 이 方法이 가장 公正하다고 여겼고, 이는 모든 문제를 비판적 정신으로써 헤아리는 데 중요한 武器의 구실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1918년 『中國哲學史大綱』을 저술할 때 이 방법을 뚜렷히 제기함으로써 이 방면 연구에 혁신적인 선풍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先秦諸子의 학설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이른바 述學, 求因, 明變 및 評判이라는 4항목을 설정하였다⁽⁶⁾. 述學이란 학파나 학설을 서술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객관적인 태도로 문제를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明變이란 변화의 과정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古의 학설과 인물들의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분명히 그 변천과정에서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求因이란 변천의 원인을 살피는 것이고, 評判이란 각 학설과 인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관적 평가를 피하고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학설과 인물에 의하여 초래된 結果——사상적 영향, 사회 및 정치상의 영향, 어떤 인물을 배출시켰는가 등을 함께 살핌으로써 그 가치평가를 공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그의 역사적 방법이다.

나머지 하나는 實驗的 方法이다. 이 실험적 방법이란 첫째는 구체적 사실에서부터 문제의 대상으로 삼고 탐구할 것이며, 둘째는 모든 학설은 그것이 試驗 내지 實驗되어야 하고 그렇기 전에는 假說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胡適은 만일 첫째에 주의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의미없는 논쟁이나 일삼기 쉽고, 두번째에 소홀하면 자칫 〈古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되기 어렵고, 한갓된 명상법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그는 歷史的 方法과 實驗的 方法을 통하여 모든 主義와 모든 學說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연구에는 오직 實證的 견해 내지는 실증적 자료를 동원하여 증명하거나 참고해야 하고, 무슨 거창한 信念의 체계거나 金科玉條의 宗教性을 부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이와같은 학문 연구의 태도에서 그는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추상적 개념에 의한 論理體系이며, 辯證法과 階級鬭爭說 등은 단지 하나의 武斷의 도그마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 한낱 특수한 時代에 특수한 환경에서 그리고 특이한 개인의 발상법이자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毛澤東을 주축으로 하는 共產主義 지도층은 胡適의 이같은 주장과

(6) 胡適, 『中國哲學史大綱』(1919), pp. 2-4. 上海 商務印書館.

발언을 이른바 〈人民의 敵〉으로 단죄한다. 마르크스·레닌의 사상을 〈普遍眞理〉로 신봉하고 유일한 指導思想으로 삼고 있음에서 그들의 敎條的 체계의식은 자신의 사상적 統制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여 갔다.

中共은 그동안 反美運動이 그들의 유일한 정치임무이자 투쟁임무이었다.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아 美國은 자본주의의 대표적 국가로서 그들의 사회주의 혁명수행에 그 주요 대상이었다. 한편 實驗主義는 미국哲學思想의 대표적인 것임에서 자본주의국가의 타도와 반미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주요한 思想鬭爭의 대상이었다. 이에 胡適思想이 비판되는 필연적 귀결이 있게 된다.

한편 中共의 內部에는 일찌기 외국에서 高等教育을 받은 知識人이 상당수 잔류해 있고, 미국을 비롯한 외국을 보지 못한 지식인들조차 다소간에 선망과 동경을 지니고 있음에서 中共당국은 이를 清算해야 했다. 따라서 이들 지식인들은 中共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 간주했고, 여기서 사상투쟁의 일환으로 숙청시켜야 할 전형적인 親美知識分子를 찾아야 했다. 胡適은 여기서 제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되었다. 그는 일찌기 미국에서 7년간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귀국후에도 이른바 〈中華文化教育基金董事會〉라는 淸朝의 對美賠償金반환기금의 운영이사회에 참여하여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내지 학술기관을 미국의 문교단체와 연결시켜 그 영향력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더우기 그는 이미 중국의 學界에서 권위적 지위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제적으로도 名望이 높은 인물임에서 그를 〈죄악〉의 상징으로 삼았다. 이에 胡適은 반미운동의 선전적 효과로 이용하기 적절했고, 中共內의 지식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도 적임자가 되었다.

III. 胡適思想 批判運動의 展開

胡適에 대한 사상적 비판은 1950년부터 시작되었다. 그에 대한 개인적 비난은 물론 그 이전에 그가 北京을 비밀리에 탈출한 후에 뒤따랐다. 1949년 3월에 당시 輔仁大學 총장이던 史學者 陳垣은 교우관계이었던 胡適에게 전하는 公開書翰을 天津의 進步日報에 발표(1949. 5. 17)하고, 그가 평소 떠나지 않겠다던 祖國을 버리고 도주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였다.⁽⁷⁾

그후 1950년 당시 中共이 마침 지식인들에 대하여 〈思想改造〉운동을 전개

(7) Bodde, Dirk, *Peking Diary*, New York, 1950.

하던 무렵, 이 격동에 마추어 中共은 당시 北京에 남아있던 胡適의 次子인 胡思杜를 시켜 아버지를 공박하는 글을 쓰게 하였다. 「나의 아버지 胡適에 대한 비판」(對我父親——胡適的批判)이란 제목의 이 公開批判書는 전국적으로 新聞에 게재되고(1950. 9. 22. ~24) 부친의 이데올로기적 轉向에 대한 공개비판을 편 非情의 글이었다. 그 要旨는 胡適이 1919년 이래로 그릇된 노선으로 빠져 들고, 실용주의를 소개하면서 유물론을 공격했다는 것이며,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정치 경제의 중요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몰아 인민을 誤導했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실속없는 改良主義를 찬양하면서 반동정부로 하여금 자기 주장을 채택토록 하였고, 동시에 자본주의의 문화적 착취를 도왔다고 하였다. 즉 그는 록펠러 기금이나 미국정부의 義和團사건배상금 반환기금의 중요 決裁者의 지위에 있으면서 스스로 제국주의의 도구로서 봉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蔣介石정부의 주미대사로 취임하고부터는 이른바 四大家門에 買辦資本의 특례를 제공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자기 아버지는 반동계급의 충성스러운 下手者이고 人民의 책임을 알았다고 쓰고 있다.⁽⁸⁾

비판운동이 1951년 접어들면서 공산주의자들은 胡適에 대한 공격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여 갔다. 그 시작은 北京大學에서부터 비롯하였다. 대학에는 아직 다수의 그를 추종하는 학생과 동료교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北京大學은 文學院과 法學院 두 단과대학으로 하여금 胡適思想問題를 토론케 하였고, 동시에 中文系, 哲學系, 史學系 및 圖書館學系 등 4개學科가 공동주최하는 이른바 <控訴會>를 열게 하였다. 이때에 중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碩學들이었던 俞平伯, 揚振聲, 顧頡剛을 비롯하여 朱光潛, 湯用彤 등이 胡適의 고발에 연루되어야 했다.⁽⁹⁾ 胡適의 친우거나 동료교수이었던 이들은 그의 영향 아래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이 改良主義者이었고 계급적 무관심자이었으며, 반동적 지배 아래 어떻게 회의적 태도를 가졌는가에 대하여 證言해야 했다. 그들은 이른바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까지 토론을 거듭 참가하면서 자아비판을 해야 했다. 예컨대 당시 哲學科 교수이자

(8) 유명한 자기 부친에 대한 이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1957년 右翼分子로 몰려 비판받고 축출되었다. Chen, Theodore H.E., *Thought Reform of the Chinese Intellectuals*, p. 45, p. 218. Hong Kong Univ. Press. 참조.

(9) 金達凱, 『中共批判胡適思想研究』(1956). p. 21. 香港 自由出版社.

北京大 총장서리를 지냈던 湯用彤은 胡適의 영향으로 자신의 階級觀念이 결여되었고, 한 번은 蔣介石과 만찬을 같이 한 데서 同志와 敵을 구분 분별하지 못한 과오를 범했다고 증언해야 했다.⁽¹⁰⁾

한편 이같은 모임은 동시에 上海에서도 행하여졌다. 赤化되기 이전 上海에서 자유독립의 日刊紙로 높이 평가받던 『大公報』가 이 집회를 주최하였다. 여기서 증전에 胡適과 친교가 있었던 인사들은 공개석상에서 참회해야 했다. 沈尹默은 일찌기 五四運動시기에 北京大學에서 中國語를 가르쳤고, 胡適과 함께 『新青年』잡지의 편집책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제 胡適이 <자아선전가>이며, <자랑꾼>이며, 항상 스스로가 權威라고 자처하던 사람으로 독단이 강하다고 회상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한 선전이 심하여 작은 역할을 했을 뿐인데도 많은 것을 아는 척 하려고 애썼다고 고발하였다. 예컨대 白話運動은 사실상 陳獨秀가 처음으로 착수했던 것이라고 沈은 밝히고 있다.⁽¹¹⁾

한편 中國의 史家로 유명한 顧頡剛도 예외없이 등장되어야 했다. 그는 胡適이 배출한 최초의 愛弟子이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스승에 대하여 그가 <修正主義者>이며, 자기의 <革命意識>을 질식시키려 했으며, 大衆을 무식하고 위험한 자들이라는 관념으로 洗腦시키려 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결코 인민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완전히 그들과 이간시켰다고 증언해야 했다.⁽¹²⁾

1952년에도 上海에서는 胡適思想批判座談會를 계속해서 열었고, 여기에 沈尹默, 周谷城 및 蔡尚思 등의 인물이 비판에 참여하였다. 당당시 비판에 集約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었다.

(1) 胡適은 북경대학에 재입학하던 초기에 사상적으로 李大釗같은 동지적 인물과 접근하지 않았고, 정치에 무관심하였으며 오로지 학문만에 전념한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반동정권>에 迎合하였다.

(2) 胡適은 중간노선을 취하면서 개량주의 사상을 주장함으로써 봉건체제를 유지 옹호한 바 되고 공산당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3) 그는 서양문화를 소개한다면서 두이같은 인물을 초청하여 강연을 시

(10) 天津, 『進歩日報』, 1951. 12. 13日字, Chen, T., *Thought Reform of the Chinese Intellectuals*, p. 46에서 引用.

(11) 上海, 『大公報』, 1951. 12. 16. Grieder, Jerome B. *Hu Shih and the Chinese Renaissance*, pp. 361-362. Harvard Univ. Press. 1970 引用.

(12) 上海, 『大公報』 1951. 12. 16. Grieder, J. *Ibid.* p. 362.

킴으로써 買辦思想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13)

胡適은 中共에 의하여 이와같이 비판되고, 이러한 운동은 결국 당시에 아직 청산하지 못한 관료주의 의식같은 <과거>와의 혁명적 袛別을 고취시키는 이른바 <三反>, <五反>운동으로 연결되면서 전국적인 대중캠페인으로 확대하여 갔다.

그 다음의 胡適思想에 대한 전면적 비판은 1954년 10월 俞平伯의 『紅樓夢研究』를 기화로 하여 일어났다. 俞平伯은 오랜 전부터 이른바 <紅學>의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일찌기 『紅樓夢辨』(1923)이란 전문서적을 낸 바 있고, 이는 胡適의 『紅樓夢考證』(1921)과 함께 이른바 <紅學>의 대표작으로 꼽히던 것이다. 俞의 『紅樓夢研究』란 대륙이 공산화된 이후 이른바 <新觀點>에서 改作한 것으로 1953년 4월에 출판되었다. 이것이 1954년 9월 뜻밖에 무명의 두 청년에 의하여 쓰여진 <『紅樓夢簡論』 및 기타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山東大學의 『文史哲』에 발표되자 中共의 思想界에 커다란 파문이 일게 되었다. 이 논문은 중국고전연구의 大家인 俞平伯이 清代의 소설 『紅樓夢』을 저자인 曹雪芹의 自傳이라 보고 그 가치를 矮小化시킨데 대해서 본 소설은 다수 농민의 회생위에 세워진 봉건지주제급의 부패하고 타락된 모습을 폭로한 위대한 리얼리즘의 문학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결국 俞의 紅樓夢觀點에 계급적 관념이 결여되었음을 보는 것이라고 지탄하였다. (14) 이에 다음 달인 10월 中共당국은 俞의 新著書가 옛 것의 내용과 순서를 다소 바꾸고 胡適의 저서를 인용했던 것을 삭제하였을 뿐, 기본적 관점은 별다름없고, 또한 胡適思想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俞의 『紅樓夢研究』에는 胡適일파의 부르조아적 반동적 실용주의의 악영향이 보인다고 하면서, 中共은 俞의 사상적 근원을 구명하는 데서 투쟁의 목표가 胡適으로 미쳤다. 이에 다시금 胡適의 清算운동이 정식으로 전개되었다.

그 처음 中共은 中國科學院과 中國作家協會가 공동주최하여 이른바 胡適學術思想批判討論會를 가졌다. 이때 참석한 토론자로서는 당시 科學院원장인 郭沫若, 作家協會회장 겸 文化部長관인 茅盾, 黨이론지 『學習』의 편집인 艾思奇를 비롯하여 潘梓平, 胡繩, 馬特, 馮友蘭, 金岳霖, 何思敬등 문화계 학계의 대표적 인물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7개의 비판조직을

(13) 金達凱, 『中共批判胡適思想研究』(1956). p. 21.

(14) Grider, J. *Hu Shih and the Chinese Renaissance* (1970). p. 363. 및 安藤彦太郎編, 『現代中國事典』(1972), p. 106 참조.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胡適哲學思想批判組」, 「胡適政治思想批判組」, 「想胡適歷史觀點批判組」, 「胡適文學思想批判組」, 「胡適中國文學史觀點批判組」, 「胡適中國哲學史觀點批判組」 및 「紅樓夢의 人民性과 藝術性成就組」 등이 그것이다.⁽¹⁵⁾ 그리고 이들은 모두 「胡適思想批判討論會工作委員會」가 지도기관이 되어 지시를 받아야 했다.

이 工作委員會의 지시 아래 각 組織들은 1954년 12월 말에서부터 1955년 4월 초까지 20차의 토론회를 가졌고, 18편의 연구논문이 나왔다. 그 가운데 그의 實用主義哲學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8차, 그리고 비판적 논문이 또한 8편 제출되었다.⁽¹⁶⁾

이와같은 비판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上海, 武漢, 蘭州, 重慶 등지까지 여러가지의 座談會, 討論會, 批判會 등이 꼬리를 이었고 胡適의 사상전반에 걸친 清算作業이 진행되었다.

胡適이 재직하였던 北京大學의 경우는 특히 더욱 가열된 것이어서 대개 3단계로 발전해 갔다. 첫째 단계는 54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의 『紅樓夢研究』를 중심한 비판으로 文學院 중심의 본 좌담회와 발표회는 피상적이었고 교수들의 참가도 소극적인 것이었다. 둘째 단계는 54년 12월 1일 문학부 교수좌담회에서 55년 3월 2일의 교무위원회 중심의 확대회의를 거행하기까지이다. 당시는 참석인원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신상의 피해를 두려워한 다수의 소극적 활동으로 그 수확은 미흡한 것이었다. 이에 北京大學당국은 55년 3월 2일 교무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1) 모든 교수와 학생은 반드시 胡適思想의 청산과 결부시켜 각자의 唯心主義사상을 검토한다.

2)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막론한 모든 학과과정은 유물주의 세계관을 선양하고 유심주의 세계관을 반대하는 활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3) 모든 교수는 좌담회에 참가해야 하며 비판논문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미 지상에 발표된 논문들은 학생들에게 보고해야 한다.⁽¹⁷⁾

이에 따라 교내에서 개최된 좌담회와 토론회는 26차에 이르고 발표된 비판 논문은 47편, 탈고된 미발표논문이 39편, 집필중인 것이 32편에 이르렀다.⁽¹⁸⁾

(15) 『新華月報』 1955. 5月號 참조.

(16) 『人民日報』, 1955. 5. 6.

(17) 『光明日報』, 1955. 5. 6.

(18) 金達凱, 『中共批判胡適思想研究』, p. 25.

中共은 이러한 胡適思想批判운동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唯物主義講座를 설치, 전국적인 교육활동을 추진하였다. 각지에서는 講師團이나 講演研究組 내지는 哲學敎員訓練班등을 조직하여 유물주의를 선전함과 유심주의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中共은 胡適思想의 비판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광범위한 비유물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배척의 사상투쟁으로 확대시켜 갔다.

IV. 胡適의 哲學과 그의 唯物主義와의 對立

胡適의 哲學에 관한 중요 저술은 대체로 『實驗主義』, 『杜威哲學』, 『中國哲學史大綱』(上卷) 및 『五十年來的世界哲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저술들은 그러나 基本的으로 實用主義 또는 實驗主義 관점에서 서술한 일관된 이론체계이고, 이외에 수많은 단편 論評이나 隨想중의 내용도 거의 위의 저술에 수렴될 觀點에 입각하고 있다.

그는 哲學에 관한 定義를 “인생의 절실한 문제를 연구하여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고하며 하나의 근본적인 해결을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이다”⁽¹⁹⁾라고 서술하고 있다. 인생의 절실한 문제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그의 철학적 관심의 대상은 주로 人生哲學과 認識論분야이었다. 이 분야에 관한 관점도 다양하겠으나 그는 『五十年來的世界哲學』(1922.9)을 발표한 내용 가운데 자기 자신은 〈實驗主義의 信徒〉임을 분명히 밝힌다.⁽²⁰⁾ 그는 미국에서 귀국한 이래 학문활동의 거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태도, 새로운 視覺을 보여 왔다. 아직까지 중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實用主義나 實驗主義가 하나의 海外思想으로서 소개되기 보다는 胡適자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발언되었다. 당시 哲學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거의 유럽철학의 번역 소개를 통한 形而上學이나 觀念論계통의 이론체계를 중심한 것이었다.

그는 方法論에 있어서 종래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문제이던 어떤 절대적 範疇보다는 效果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모든 학설과 관념의 眞僞를 실제적인 효과에서 판정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모든 法則이나 범주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인간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냐는 効用性에 따라 판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용성을 眞理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19) 胡適, 『中國哲學史大綱』(1919), 「導言篇」 p. 1.

(20) 『胡適文存』 2集 卷2.

피즈(C.S. Peirce)의 원리이고 실용주의의 원리이거나, 이제 中國에서는 胡適에 의하여 소개되고 직접 강조되는 것이었다. 그에 의하여 소개되는 주장들, 예컨대 “하나의 관념은 마치 은행수표와 같아서 그 위에 기록된 금액에 따라 효과가 보장되는 것과 같다. 만일 은행에서 이 수표를 보고 곧 현금으로 바꾸어 준다면 그 수표는 참이고 그같은 관념은 참이다”, “이전의 철학은 모두들 實在은 영원불변하다고 하나 제임스학파는 실재란 항상 변하는 것이고 항상 첨가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의하여 改造되는 것이다. 실용주의에 있어서 宇宙란 마치 한편의 미완성 草稿와 같고, 장차 수정될 수 있는 것이다”⁽²¹⁾ 등은 진리나 관념이 인간의 생활경험속에서 발달하고 형성되는 것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듀이의 철학을 설명 소개함에 있어서 실험주의는 유물론과 유심론의 논쟁이나 主觀이나 客觀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철학이라고 강조한다. 〈經驗〉이야 말로 듀이와 胡適이 새로이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새로운 概念이었다. 실험주의에서의 경험은 흡사 材料와 같은 것으로 이 경험에 의하여 主觀이든 客觀이 구성되는 것이라 본다. 종래에는 경험을 단지 受動的인 적응의 의미로나, 주관적인 심리현상으로 認識論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경험이란 인간의 사회적 환경과의 교섭하는 문제로 파악한다. 이에 경험은 주어진 환경을 變形시키는 노력이며, 그런 의미에서 경험은 항상 실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경험은 思惟와 대립시켜 문제삼을 것이기 보다는 경험자체에 사유가 내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험주의는 외계로부터 경험의 재료를 주워 모을 뿐만 아니라 사유에 의하여 구성되고 改造시킨다고 한다. 여기서 그들은 진정한 철학이란 반드시 종래의 여러 철학자의 문제를 버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²²⁾

요컨대 실험주의 철학은 靜觀的 철학에서 動態的인 有用性을 증시하는 철학이었다. 그리고 변증법적 사유체계를 실험증심의 이론체제로 변질시킨 철학이었다. 이와같은 철학은 당시 중국사회에서 전통적인 形式主義와 그리고 당시에 소개된 유럽철학의 정교한 概念主義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강력한 사상으로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胡適에 의해서 중국적인 르네상스가 전개될 계

(21) 胡適, 「實驗主義」, 『文存』1集, 卷 2.

(22) 胡適, 「杜威哲學的 根本觀念」, 『胡適文選』, p. 18.

기는 바로 이 실험주의 또는 실용주의의 사상적 추진력을 이용한 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中共은 대륙을 共產化한 이후 그들은 자칭 〈新中國〉의 〈新哲學〉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마르크스 사회주의철학이라 부르는 저들의 변증법적 유물론철학은 다른 철학에 대하여 철저히 배타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이른바 〈舊哲學〉이 개인중심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해서, 〈新哲學〉은 사회와 大衆을 중심해서 전개하는 철학이라고 선전하고, 구철학이 정태적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데 비해서, 신철학은 실천적으로 세계를 개조하는 데 목적을 두며, 구철학은 초계급적이라 하고 철학이란 계급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신철학은 철학에는 계급성이 있고, 그들 스스로는 무산계급의 철학이라고 자처한다.⁽²³⁾

共產主義 사회에서는 철학이란 단지 唯物論과 唯心論으로 나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외에 다른 제 3의 철학이란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한다.

예컨대 칸트철학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는 비록 물질의 객관적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인식능력이 물질자체의 성질을 반영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데서 인식내용이란 순수주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그는 유심론의 노선을 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實用主義 또는 實驗主義란 일종의 〈主觀的 唯心論〉이라고 규정한다. 유심론은 그들에 의하면 〈주관적 유심론〉과 〈객관적 유심론〉이란 두가지 기본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른바 〈객관적 유심론〉이란 세계의 모든 존재가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 정신적 요소에 의하여 창조 생성된 것 처럼 여기는 인식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세계관은 대개 이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주관적 유심론〉은 인간의 주관이나 개인적 의식이 세계의 존재를 생성하거나 결정한다는 논리체계이다. 공산주의 자들에 의하면 실험주의는 주위의 세계를 인간감각의 종합이라고 보는 데서 주관적 유심론의 하나로 간주된다. 그들의 실험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4가지 측면에 집중되고 있다.

첫째, 世界觀의 관점에서 실험주의는 주관적 욕구를 객관적인 것으로 여기는 데 대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먼저 물질이 존재하는 데서 정신이 그 후에 존재함과 함께 객관적 현실이 먼저 있음에서 주관적 욕구가 생긴다는 것

(23) 『新建設』(月刊) 3卷 3期.

이다. 실험주의는 그들에 의하면 心理現象이 第一性質의 현상이며 物理現象은 第二性質의 현상으로 보고 주관을 객관적 존재로 바꾸어 이해한다고 본다. 그리고 실험주의는 결국 個人을 중심해서 문제삼으므로 해서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제공된 철학이라고 언급한다.

둘째, 眞理論에 있어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객관적 존재의 발전법칙에 관하여 강조한다. 즉 自然은 그의 내재적 법칙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는 통일적 존재로서 자체가 부단한 발전의 상태로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발전과정이란 돌변하는 질적 변화의 과정으로 보아, 대립적 투쟁을 바로 量化에서 질적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의 내용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공산주의이론에서 〈眞理〉란 바로 객관적 세계의 법칙성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진리와 허위의 식별기준은 오직 사회적 실천에서 파악하려고 한다. 즉 사회적 실천과정 중에서, 생산투쟁의 과정 중에서, 그리고 계급투쟁의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그 인식하고 있는 바 객관적 세계의 법칙에 따라 실천하고 급기야 그 법칙에 부합되는 효과를 얻는다면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다. 이에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고, 실천 중에 인식되는 것이며, 과학적 법칙이란 사람이 실천중에 인식하는 객관적 사물의 법칙이며, 실천을 통하여 그 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론이다.⁽²⁴⁾ 이같은 이론에 따라서 윌리엄 제임스의 진리론은 단지 관념의 자기전개에 불과하며, 존 듀이의 진리론 역시 문제의 해결과정을 논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환경에 대응하여 교섭하는 실천을 진리라고 보려는 실험주의는 사실상 진리를 취소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는 論理에 관한 문제로서, 공산주의이론은 실험주의가 주관적 욕구에 따른 행동방식이 진리를 구명하는 논리라고 해석하고, 유물변증법은 논리로서 추리한다고 말한다. 그들에 의하면, 현상은 여러 개별적 현상의 상호연관성과 상호제약의 측면에서 관찰되어야 하며 그 현상들의 운동, 변화, 발전 및 발생과 쇠퇴 등을 관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듀이의 실험주의적 논리는 유물론의 추리에 의한 방법적 논리와 전혀 다르다고 언급한다.

넷째는 方法論에 관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歷史的唯物論의 思想의 方法이야말로 〈진정한 科學의 方法〉이라 간주하고, 이 사상적 방법의 지도에 따라 무엇보다 먼저 객관적 존재의 실제상태에서 출발할 것과 우선 상세하게 재료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착수하는 시작에서

(24) 「實用主義批判」, 『新建設』 1955. 3月號.

부터 엄격하게 유물론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관념이 참작되거나 혼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험주의측에서 강조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환경과의 상호교섭이라거나 세심한 사실의 탐구 같은 것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동시에 객관적 존재의 실제 사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이 아닌 것과의 구별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상세하게 많은 자료를 소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중요한 주의력을 근본적인 사실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사실적 재료의 핵심을 분석하고 종합하려 든다. 이같은 문제취급에서 이른바 사회적 실패와 계급투쟁 등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그들은 실험주의가 탐구하려는 사실에서는 결코 사회적 및 역사적 중요사실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상을 다시 約述하면 다음과 같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실용주의가 哲學의 문제에 관하여 적어도 4가지의 차이점이 있고, 따라서 이는 공산주의 전개에 불리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그 첫째는 실험주의가 객관적 존재의 발전 법칙을 부정함으로써 역사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부인하며, 따라서 對立的 鬭爭이 역사발전의 추진력이라는 점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실험주의가 역사에 대해서 質的 변화의 突變性을 부정하고 단지 점진적인 변화만을 옹호하는 데서 결국 자본주의 존재의 정당성을 옹호하려 든다고 본다. 셋째는 실험주의가 개인중심의 이론을 앞세워 부르조아계급 중심의 제국주의 사고를 확대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실험주의가 점진적인 改良을 주장함으로써 혁명투쟁의 방식을 반대하고, 그럼으로써 인민으로 하여금 현실의 이른바 <反動政治>의 생활에 安住시킨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실험주의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상에서와 같이 한결같이 현실적인 政治問題와 결부해서 논의되고, 그것도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하물며 실험주의를 깊이 신뢰하고 중국의 사상계에 이 실험주의의 철학을 소개하고 뿌리심은 胡適에게 비난과 공격의 화살이 겨냥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中共이 그를 이른바 <人民의 敵>으로 선전한 데에는 그만큼 실험주의가 용납되는 자유세계에 대한 방어메카니즘으로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식분자를 겨냥한 思想鬭爭의 수단으로서 이용하였던 것이다.

V. 結 論

胡適과 듀이(杜威) 그리고 實用主義에 대한 그동안(1954年~55年)의 극심했던 비판과 검토의 성과는 곧 이어서 『胡適思想批判』(北京:三聯書店, 1955~56)이라고 하여 총 8輯의 大作으로 그동안의 모든 발표문들을 모아 간행되었다. 이 책자는 그당시 약 500만명에 이르는 讀者를 확보한 것으로 전한다.⁽²⁵⁾ 이 일련의 비판활동은 당시 공산당의 幹部나 지식인에게는 적극적으로 社會主義 건설에 적합하도록 만든 再教育의 기회로, 그리고 대중에게는 보다 광범위하고 깊게 그들의 유물론사상을 注入시키는 기회로 이용되었다.

이 胡適思想의 批判활동은 그후 文化大革命(1965~69) 후에 다시 강의가 시작된 北京大學 哲學科의 과목에 이른바 「杜威·胡適思想批判」으로 설강되었다.⁽²⁶⁾ 뿐만 아니라 中共이 美國과 전면적으로 國交를 수립하고 兩國間的 제분야에 걸친 밀접한 왕래가 加速化하는 듯한 80年代 최근에도 胡適과 그의 實用主義에 대한 비판과 검토는 전문적 연구논문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본다. 50년대 胡適批判에 앞장서 비중높은 論評을 실었던 『哲學研究』는 최근에도 계속 이러한 논문들을 게재하고 있다. 즉 「美國實用主義 발전의 주요 추세를 論함」⁽²⁷⁾이라는 논문은 듀이 이후 미국의 실용주의가 論理實證主義와 결합하여 현재 <前途가 희망적>인 철학으로 변하고 있다고 논하면서, 實用主義哲學은 여전히 현대 서양 부르조아계급철학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學派라고 못박고 있다.

한편 1980년에 創刊된 『中國哲學史研究』(季刊)의 최근호에도 「胡適의 實用主義 道德觀과 그 영향」⁽²⁸⁾이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현재의 中共이 이른바 <열려진 新中國>으로 이해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 論旨은 여전히 완강한 教條主義의 입장이다. 胡適의 實用主義는 政治的으로 改良主義와 기회주의 및 投降主義로 中共의 혁명수행에 줄곧 파괴작용을 하였을 뿐이고, 道德的으로는 相對主義, 허무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個人主義로서 中共활동의

(25) 安藤彦太郎編, 『現代中國事典』. p. 132.

(26) 같은 책. p. 132.

(27) 羅克汀, 『哲學研究』(月刊) 1981年. 第12期. p. 63-68.

(28) 石毓彬, 『中國哲學史研究』總6第期. p. 91-100, 1982. 1.

내부에서 막대한 부패작용을 끼쳤다고 지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中共이 〈實用主義者들이 집권〉하면서 이른바 非毛澤東化의 정책을 취하면서 점차로 〈열려진 中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中共이 그간 30년 이상 지금까지도 전개하여 오는 여러 思想鬭爭의 발자취를 살필 때 그러한 診斷은 매우 조급한 판단이라 여겨진다. 한편 西方世界에서 鄧小平이나 中共의 집권층을 가리켜 〈實用主義者〉云云하는 것도 이제까지의 胡適과 實用主義에 대한 비판운동을 고려할 때 올바른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 中共은 이 실용주의 비판에 있어서나 나아가 그들의 社會主義노선에 있어서 아직 어떠한 軌道修正이나 過去와의 袞別을 선언하지 않았다. 오히려 文化大革命 이후 나후된 科學技術과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中共은 불가피하게 서방 세계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것 또한 30여년간 구축해 온 中共의 社會主義 諸原則과 여러 측면에서 저축될 것이 예상되는 데에서 언필칭 中共의 開放에 이르기까지에는 오히려 中共內部에서 상당한 試鍊과 갈등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으로 보아 현재 中共의 思想路線을 마치 實用主義라는 개념으로써 이해하려는 듯한 경향은 전혀 그릇된 定義的 理解라고 할 것이다. 實用主義에서는 實用的이라는 말도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實利的 욕구충족을 위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現實主義가 포함할 속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中共의 국제관계에서의 전환 내지는 鄧小平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中共指導層의 이른바 〈實用主義的〉 노선은 오히려 中國의 傳統에서 흔히 엿볼 수 있는 〈現實主義的 절충〉이라고 봄이 훨씬 정확할 것 같다.

여하튼 현재의 中共이 毛澤東의 강경노선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처지일진대 南北統一을 念願하는, 우리 韓國의 입장으로서도 中共의 국제사회에서의 向方에 계속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際情勢 등을 把握하고 分析함으로써, 北韓의 對美行態를 理解함과 아울러 北韓의 對美 또는 對韓行態 研究에 조금이나마 寄與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研究目的을 爲해서는 北韓의 對美觀 및 過去의 對美挑發事例들과 함께 北韓의 對美政策目標 및 對美政策推進方向 등을 幅넓게 取扱할 必要性을 느끼지만 本研究에서는 必要한 部分만 조금씩 取扱하였다.

2. 研究範圍

北韓의 對美行態를 充分히 理解하고 說明하기 爲해서는 1945년의 韓半島 分斷에서부터 現在까지의 美·北韓關係를 檢討·評價하여야만 될 것이나, 本課題의 性格上 時期範圍를 最近의 美·北韓關係를 中心으로 研究를 進行시켰다. SR-71機事件을 研究의 主題로 擇한 것은 그 事件 自體의 重要性도 있지만, 「레이건」行政府가 登場한 以後의 北韓의 對美行態를 評價하고 展望하는 좋은 事例가 되기 때문이며, 아울러 過去의 對美重大挑發事件들과 比較하여 봄으로써 北韓의 對美行態를 더욱 充實히 살펴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對美外交政策이나 敵對行態의 「패턴」(pattern)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北韓의 對美行態를 理解하기 爲해서는 北韓의 外交政策 全盤, 美·蘇關係의 發展推移, 中·蘇紛爭, 北韓의 對第三世界政策과 特히 非同盟政策, 北韓內의 權力構造問題나 經濟狀態, 그리고 北韓이 認知하는 韓國內의 政治安定 및 經濟發展 等도 充分한 檢討를 要하지만, 研究의 範圍가 美·北韓間의 最近關係에 局限되어 있으므로 必要한 事項만 조금씩 言及하는 程度로 그쳤다.

3. 接近方法

北韓도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國際環境의 影響을 받게 되는데, 周邊國家들이 美·蘇·中·日과 같은 強大國들인지라 北韓의 對外政策이나 行態는 周邊變化에 따라 調整되거나 適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弱少國의 強大國들과의 關係에서 不可避한 生存과 能力의 限界를 意味하는 것이다.⁽³⁾

北韓이 周邊強大國들의 影響을 어떻게 認知하고 反應을 보이는가를 研究

(3) 이러한 視角에서 北韓의 外交政策을 다룬 책으로서는 Wayne S. Kiyoo,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The Politics of Accomodation, 1945~75* (N. Y.: Praeger Publishers, 1976)를 꼽을 수 있다.

하기 爲해서는 北韓現地에서 「인터뷰」나 設問 等を 通해서 調査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는 非現實的인 지라 다른 方法을 講究할 수 밖에 없는 것이 大部分 北韓問題研究者들의 共通된 애로점이다. 勿論 北韓社會의 閉鎖性과 理念的인 硬直性 때문에 接近이 許容된다 해도 願하는 資料들을 短期間 동안에 수집하기란 至極히 힘들 것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곳에서 우리가 求할 수 있는 資料들 보다 越等하게 優秀한 資料들을 수집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豫想된다.

次善의 方法은 韓國에서 發見할 수 있는 北韓資料들을 利用하는 것인데, 宣傳的인 色彩가 強하여 眞意를 把握하기가 힘든 것이 큰 缺點이지만, 慎重히 處理한다면 宣傳物들로부터도 北韓의 認知, 意圖, 計劃, 政策 또는 反應들에 關한 많은 情報을 얻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宣傳이라도 呼訴力이 있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眞實을 包含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境遇에는 곧 宣傳으로서의 生命력을 잃게 되어 宣傳對象으로부터 拒否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反復되는 宣傳物 속에서 相對方의 眞意를 把握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를 爲해 學者들이나 實務者들이 內容分析(Content Analysis)을 試圖하기도 하는 것이다.

本研究를 爲해 北韓의 黨機關紙인 勞動新聞의 內容分析을 試圖하려 했으나 時間 및 資料의 制約으로 因해 必要한 北韓 또는 英文資料만을 利用하고 말았다.

北韓의 對美行態를 研究하기 爲해서는 心理的 또는 理念的인 接近方法과, 北韓의 國內外的인 諸變數들을 考慮하는 分析的인 方法을 優先 생각할 수 있다.⁽⁴⁾ 心理的인 方法과 分析的인 方法은 別個의 方法이기 보다는 서로 補完關係에 있다고 봄이 옳을 것이며, 그래야만 더 나은 研究結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心理的인 方法은 한 國家를 一個行爲者로 보고 外部環境으로 부터 들어오는 情報나 行爲들을 그 國家가 어떻게 認知하고 評價하며 어떠한 行態反應을 나타내는지 하는 點들에 重點을 둔 方法으로서 認知(perception), 「이미지」(Image), 또는 信念體系(Belief System) 등이 中心概念이 된다. 따라서

(4) See Kenneth W. Thomson and Roy C. Macridis,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Policy," in Roy C. Macridis, ed., *Foreign Policy in World Politics*, 5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6).